

4

언어 영역

1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가야 할 것은?

<보기 1>

- '-마는':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꿈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김소월, 「나의 집」 -

(나) 잃어 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B]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다) ㉤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14.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15.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③ ㉢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18. (다)의 ㉠, ㉡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짝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냐
 저 임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② ㉠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③ ㉡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08. 6월 13~18번

(가) -김소월, 「나의 집」-

제목이 나의 집이니까 뭔가 정겨운 내용들이 나올 것 같네요 ㅎㅎ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슴의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다시금 큰길을 앞에다 두고,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제가끔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나의 집에 대해서 말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지을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ㅎㅎ
넓은 바다 뒤에, 큰일을 앞에 두고
집을 짓겠다네요 ㅎㅎ
집 지을 돈은 착실히 모아왔나보네요 ㅋㅋ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 도치

**하이얀 여울턱에 날은 저물 때,
나는 문(門)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 새가 울며 지새는 그들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며,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오홍. 굳이 사람이 많은 큰길을 앞에 두려는 게 아니었네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시다.
그대를 기다리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곳에 집을 새로 지으려는 거였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가 오는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대는 누구일까요? 그리워하는, 기다리는 대상이겠죠 ㅎㅎ

하이얀 - 색채, 시적허용
번쩍이며 - 시각
그대인가고 그대인가고 - 반복

(나) 길 - 운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뭔진 모르겠는데 잃어버렸네요.
그럼 이제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나올 것이고
뭔가를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찾으려고 하겠죠.

습니다 - 대화체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분가 ㅋㅋ
주머니에 혹시 있을까봐 더듬어보면서
길을 걸어가네요.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지금 길을 걸으면서 잃어버린 걸 찾고 있는 거겠죠.
근데 길은 돌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돌담이 막고있네요.

돌, 돌, 돌, 돌담 - 반복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서
담 넘어로 못가게 하는 놈이네요
아 넘어가고 싶다 ㅠㅠㅋㅋ
해가 저물무렵인지 그림자가 기네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대요
그럼 내가 아침부터 걸었는데
저녁에 되고 다시 아침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밤새도록 하루종일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적당히 찾고 집에 가면 좋을텐데 계속 찾네요 ㅋㅋ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도 푸릅니다.

눈물이 나오네요
잃어버린걸 못 찾아서 그렇겠죠 ㅋㅋ
하늘을 보면 부끄럽대요
잃어버린게 쪽팔린거죠 ㅠㅠㅋㅋ
칠칠맞게 흘리고 다니니까..

부끄럽게도 - 정서직접
푸릅니다. - 색채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걷는 길은 풀 한 포기 없는 곳이네요
생명이라고 찾아볼 순 없는
돌만 있는 펍펍? 삭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ㅋㅋ
그런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어서래요
음 그렇다면 내가 잃어버린 건
담 저쪽의 나겠네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래요.
나의 삶의 목적은 잃어버린 담 너머의 나를 찾는 것.
바꿔말하면 담 너머의 나는
내 인생을 걸어 찾아야만 하는 잃어버린 자아가 되겠네요.
지금의 나는 그런 자아가 없는
부끄러운 자아가 되겠구요.
아까 잃어버려서 부끄럽다고 나왔었잖아요?
역시 이번에도 부끄럽다고 고백하는 시였습니다.. 동주홍..ㅋㅋ

시를 읽을 때는 항상 주제가 하나라는 걸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해석하라고 했었죠? 이 시도 마찬가지로요
첫연에서 잃어버렸다고 말했으니
잃어버린게 무엇인지 나올 것이고
잃어버렸으니 찾으려고 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를 해석하면 너무 쉽게 해석되죠 ㅋㅋ

(다)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아주 유명한 시네요 ㅎㅎ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누가 죽었나보네요
'나는 간다' 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간걸 보면 의외의 죽음이었으려나요?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가지에 난 잎처럼 한가지에 났지만
가는 곳은 모르는 구나 라고 한걸 보니까
죽은 사람이 형제자매인가봐요

모르온저(모르는구나) - 영탄
어느~ 모르온저 - 비유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미타찰은 불교의 극락이죠?
이 사람은 종교가 불교인가보네요
죽은 형제가 미타찰에 가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도를 닦으면서 미타찰에서 만날 때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아아 - 영탄

◎13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7. 9월 28번에서도 나온 선지죠 ㅎㅎ

그 때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하자면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자연의 아름다움, 불변성 등과

인간의 세속성, 유한성 등을 대립시켜야 맞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되는 시가 없네요 ㅋㅋ

②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가는 지금 부재의 상황이고 (누가 없다. 이별했다. 기다린다면 다 부재입니다)

그에 대한 대처는 큰길에 집을 짓고 그대를 찾겠다고 나와있네요

(나)도 부재의 상황이네요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대응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에도 부재(사별)의 상황에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고 나와있네요

③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전망이 있는 건 (다)정도 밖에 없네요

미타찰에서 만날 것이다.

④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리고 있다.

- 어떤 세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확신은 더더욱 없구요.

⑤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우회적 비판은 돌려서 까는 거죠 ㅋㅋ

일단 까는 것도 없고 돌려서 말하는 것도 없네요

답 2번.

◎14번. [A]와 [B]에 나타나 있는 시간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에서는 시간이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 시간에 대해 나와있고 하이얀, 울며, 회개 등의 감각적 표현이 있네요 ㅇㅋ

② [B]에서는 시간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니까 지속되는 거 맞네요 ㅇㅋ

③ [B]에서는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형상화되어 있다.

- 길은 공간이고 아침과 저녁은 시간이니까 맞죠.

결합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ㅋㅋ

④ [A]에서는 [B]와는 달리 시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역설이 어땠어 -ㅁ-

⑤[A]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기다림과, [B]에서는 시간이 화자의 고뇌와 연관되어 있다.

- A는 기다리는 거 맞고 B는 내적갈등을 하는거니까 맞네요 ㅇㅋ

각각의 시들의 주제를 물어본 거네요

답 4번

◎15번. (나)의 ‘하늘’과 (다)의 ‘미타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가 몸을 담고 있는 공간이다.

- 에라이 ㅋㅋ

② ‘하늘’은 숭고함을, ‘미타찰’은 비장함을 자아내는 공간이다.

- 뭐래.. ㅋㅋ 숭고하다는 건 희생의 의미가 들어있어야하고
비장한 거는 죽음을 각오한 뭐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둘다 별 상관이 없네요

하늘은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 같은 대상이고

미타찰은 내가 나중에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미타찰로 가기 위해 당장 죽겠다 그런거 아니잖아요 ㅋㅋ

늑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 무슨 비장함이..

③ ‘하늘’과 ‘미타찰’은 화자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 이것도 헛소리..

④ ‘하늘’은 화자의 반성을, ‘미타찰’은 화자의 지향을 함축하는 공간이다.

- 선지 2번에서 설명한게 여기 그대로 있네요 맞습다 ㅇㅋ

⑤ ‘하늘’은 자연의 영원성을, ‘미타찰’은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헛술 ㅋ

이런 문제는 틀린 선지를 지우는 방식이 아닌

맞는 걸 찾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특정 시어의 의미를 묻는건 그대로 읽기를 통해서 파악하면 되죠

그대로 읽기가 안되면 문맥적 읽기를 하구요 ㅎㅎ

선지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늘과, 미타찰의 의미를 먼저 찾아놓고

답을 찾는게 빠르고 정확합니다 ㅎㅎ

답 4번.

◎16번.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의 ‘집’은 탈속한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상징하고 있다.

- 너 땡 ㅋㅋ 집을 왜 짓나요. 집은 그대를 기다리기 위한 공간이죠 ㅋㅋ

②㉡의 ‘더듬어’는 화자의 내면적인 방향을 함축하고 있다.

- 길가는데 더듬는다? 길을 잘 못가고 헤맨다는 거죠

그리고 (나)시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내용인데

그럼 더듬는다는 건 잃어버린 자아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거니까

내면적 방향이 맞습니다 ㅇㅋ

③㉢에서는 ‘돌’을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무거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자연의 기본적인 속성들을 이용해서 심리를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돌이 무거운 속성이 있는지.

시의 주제가 무거운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

돌이 다른 의미로 쓰인 건 없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ㅋㅋ

④㉔의 ‘풀 한 포기 없는’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황량함을 표현하고 있다.

- 풀 없는 게 황량한 거죠 ㅋㅋ

이것도 선지3번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하면 돼요 ㅎㅎ

풀 없는 부분이 황량함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면 됩니다 ㅎㅎ

시의 주제를 고려하구요 ㅎㅎ

⑤ ㉔의 ‘머뭇거리고’는 생사의 문제에 대한 인간적 고뇌를 담고 있다.

- 머뭇거리는 거니까 고뇌 맞고

(다)는 생사의 문제가 주제니까 ㅇㅋ

답 1번.

㉔1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장을 도치시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ㅇㅋ

② 음절의 수를 조절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그대인가고 = 그대인가 하고. 글자수(=음절수)를 줄였죠? ㅇㅋ

③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그대인가고 ㅇㅋ

④ 색채어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ㅇㅋ

⑤ 토속적인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감을 환기하고 있다.

- 토속적인 것도 없고 방언도 없네요 ㅎㅎ

답 5번.

㉔18번. (다)의 ㉔, ㉔와 <보기>의 밑줄 친 시어들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간밤에 부던 바람 만정 도화(桃花) 다 지겠다

아이는 비를 들어 쓸려고 하는구나

낙화인들 꽃이 아니라 쓸어 무엇 하리오

-> 바람은 도화를 떨어뜨리는 대상.

도화는 바람에 의해 떨어지는 대상.

아이는 도화를 쓸려고 하지만

떨어진 꽃도 꽃이니 쓸지 말라는 내용.

B. 바람 불어 쓰러진 나무 비 온다 싹이 나며

임 그려 든 병이 약 먹다 나올쏘냐

저 입아 널로 든 병이니 네 고칠까 하노라

->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대상.
 나무는 바람에 의해 쓰러진 대상.
 대상간의 관계는 A와 같네요.
 쓰러진 나무는 비가 와도 썩이 나지 않는다.
 임 그리워하다가 병이 든 것이니
 임이 와야 병이 고쳐진다는 내용이네요.
 원인을 고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걸로
 부러진 나무는 물을 줘도 소용이 없다.
 나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임이 와야 고쳐진다. 이런 내용이네요 ㅎㅎ

- ① ㉠와는 달리 A의 '바람'은 화자의 시련을 상징하고 있다.
 - 시련 아님봐 ㅋㅋ 강 바람임.
- ②㉠와 B의 '바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두 바람 모두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맞네요
- ③㉠와는 달리 A의 '도화'는 화자의 감회와 흥취를 부각하고 있다.
 - A는 도화를 감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맞음.
- ④ ㉠와는 달리 B의 '나무'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 b는 가을에 떨어지는 잎으로 죽은 누이를 비유하고 있는 것. 반면에 B는 화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으니 맞네요.
- ⑤ ㉠, A의 '도화', B의 '나무'는 수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 셋 다 무언가의 의해 떨어지고 쓰러지는 것이니 수동성이 맞음 ㅇㅋ.

답 1번.

4

언어 영역

(가)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울 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었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A]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 * 노령: 러시아의 영토.
- * 자래운: 키운.
- * 아무울 만, 니코리스크: 오호츠크 해 근처의 러시아 지명.
- * 설렁한: 춥고 차가운.

(나)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
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갱(坑) 속 같은 마을. 풀깎,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
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각지, 콩각지처럼 후미진 외
판집, 외판집에도 불빛은 앓아 이슴토록 창문은 모과 빛입
니다.

기인 밤입니다. 외판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까기도 하고 고구마를 까다, 문득 바람도 없
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
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
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
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발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B]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흘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 박용래, 「월훈(月暈)」-

* 월훈: 달무리.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④ 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⑤ 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14.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
<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 / 검은 기선
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 / 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 / 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아라사: 러시아.

○ 아버지도 어머니도 / 젊어서 한창 땀 / 우라지오*로 다니
는 밀수꾼 //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 / 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 /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
름없이 / 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 우라지오: 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 ①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②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③ ‘아무울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④ ‘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
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
군.
- ⑤ ‘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
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15.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② 외판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 ③ 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④ 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⑤ 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1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② [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③ [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④ [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⑤ [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혀파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A]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ㅣ’가 발음되고, 혀를 바깥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ㅏ’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ㅓ’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후설 모음, 고모음-중모음-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뻗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

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엷으로써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엷’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 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08. 9월 13~16번

(가)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제목보니까 감각적이미지가 많이 나오겠네요 ㅋㅋ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낮선 곳에서 침대조차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ㅠㅠ
근데 그때 풀벌레 소리가 크게 나고 있었나봐요
아마 화자에게는 그 풀벌레 소리와
아버지의 죽음이 중첩돼서 기억나겠죠

최후 최후 - 반복
풀벌레 소리 - 청각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한 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 만(萬)*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 늦은 의원이 아모 말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낮을 덮었다**

돌아가신 곳이 러시아였나보네요
돈을 벌기 위해 추운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다가
침대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피지 못한 꿈은 아마 가족들과 편안히
고향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었겠죠 ㅠㅠ

꿈의 꽃봉오리 - 형상화
갈았고, 아모 - 시적허용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엄청 울었겠죠..
우리들의 울음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겹쳐 밤새 시끄러웠을 것 같네요ㅠㅠ

아버지의~ 차 있었다 - 수미상관

(나) -박용래, 「월훈(月暈)」-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앞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
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아주 깊숙한 곳에 마을이 하나 있네요 ㅎㅎ

갱(坑) 속 같은 마을. 꼴각,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
요. 콩각지, 콩각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
과 빛입니다.

아주 깊숙한 마을인데 해가 지면 불이 하나씩 켜집니다.
영상이 떠오르지 않나요? ㅋㅋ
반딧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네요

꼴각 - 음성상징어
해가, 콩각지 - 반복
모과빛 - 색채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
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짙단, 짙오라기의 설레임
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깃에 나래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노인은 밤잠이 없어서 그런지
무도 깎고 고구마도 깎고 자연의 여러가지 감각들을 느끼고 있네요 ㅎㅎ
외딴집, 홀로 라는 구절들로 보아서 외로이 혼자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네요.

침침산중에도 없는 아주 깊숙한 곳, 게다가 외딴 집, 홀로..

느낌이 오시나요?

그나저나 화자는 잠입해서 몰래 훑쳐보는 건지 ㅋㅋㅋ

몰래 엿보는 느낌이 드는 시네요 ㅋㅋ

기인 - 시적허용

설레임을 들었습니다 - 공감각

후루룩 후루룩 - 음성상징어, 반복

온기 - 촉각

생각하지요 - 대화체, 반복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말에 받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읊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읊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뜬 월훈(月暈)*.

귀뚜라미가 미친듯이 우네요 ㅋㅋ

아 시끄러!! ㅋㅋ

거기에 더불어서 창호지에 눈이 부딪혀 달무리처럼 뽀얗게 번지네요 ㅎㅎ

뭔가 따뜻하면서 정감가고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ㅎㅎ

진짜 달무리가 창호지에 비쳤다가보다는

눈이 창호지에 부딪혀서 번지는 모양을 표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ㅎㅎ

울지요 - 청각

눈 - 계절감, 시각

월훈 - 시각, 비유

㉓13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화자의 체험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우의적은 돌려말하는 건데 그런거 없고 실제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②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장면을 초점화했다는 건 특정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둘다 맞구요. 감각적 표현도 맞네요 ㅇㅋ

③담담한 어조로 대상과의 합일을 지향하고 있다.

- 담담한 어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별 무리 없습니다

근데 대상과의 합일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ㅋㅋ

대상과의 합일은 보통 자연과의 물아일체에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어조가 나온 선지는 어조말고 다른걸 먼저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여기선 대상과의 합일을 먼저 판단하면 되겠죠 ㅎㅎ

④자신을 대상화하여 현실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자신을 대상화한 거 없구요

⑤회상하는 방식으로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 (가)는 회상하는 방식이 맞네요 과거형어미가 쓰였잖아요?

(나)는 현재형 어미로 현재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답2번

◎14번. (가)와 <보기> 작품들의 화자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가)를<보기>와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털 모자 눌러쓰고 돌아오신 게 마지막 길/검은 기선은 다시 실어 주지 않았다/외할머니 큰아버지랑 계신 아라사*를 못 잊어/술을 기울이면 노 외로운 아버지였다

-이용악, 『푸른 한 나절』-

* 아라사:러시아.

○아버지도 어머니도/젊어서 한창 땀/우라지오*로 다니는 밀수꾼//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들 때/어머니의 등골에 파묻힌 나는/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젖먹이와 다름없이/얼마나 성가스런 짐짝이었을까

-이용악, 『우리의 거리』-

* 우라지오:연해주 근처의 러시아 지명.

①‘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고생한 보람도 없이 빈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뜻할 수 있겠군. - 본문에서 설명했었죠? ㅇㅋ

②‘애써 자라온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던 이유가 될 수 있겠군. - 그랬겠죠 ㅎㅎ

③‘아무일 만의 파선’과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함축하는 말이겠군.

-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일한 것을 표현하는 시어들이니 맞죠 ㅎㅎ

④‘피지 못한 꿈’은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소망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뜻할 수 있겠군. - 예압

⑤‘있는 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회한과 반성일 수 있겠군.

- 우리가 아버지 생명을 위태롭게 했나요? ㅋㅋ

아버지가 죽으면 왜 울죠? 슬퍼서 울죠. 이게 무슨 ㅋㅋ

답5번.

◎15번.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노인의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
- 이정도면 뭐 따뜻하다고 할 수 있죠 ㅎㅎ
잘 모르겠으면 이런 애매한 건 넘어가세요 ㅋㅋ
어차피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ㅋㅋ
이게 적절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하려면
노인에 대한 적대적인 시선이 있어야겠죠 ㅎㅎ
- ②외판집의 정경을 통해 노인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
-홀로, 외판 이런 어휘들 많이 썼잖아요 ㅎㅎ 맞죠
- ③목가적 분위기를 대화적 구성을 통해 보여 주고 있어.
- 대화적 구성 아니네요 ㅋㅋ
대화적 구성은 서로 말을 주고 받는 형식이죠 ㅎㅎ
목가적 분위기는 한가한 시골의 평화로움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한데
(나)는 노인이 아주 깊은 구석탱이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ㅎㅎ
좀 거리가 있죠 ㅎㅎ
- ④시상이 집약된 시어로 끝맺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어.
- 월훈 ㅇㅋ
- ⑤시어의 반복과 연쇄로 산문적 진술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 반복 있고 , 연달아서 나오는 단어도 있네요 ㅎㅎ ㅇㅋ

답 3번.

◎16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A], [B]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환기한다.
- 별 의미가 없는 선지네요 ㅋㅋ 적절한 것에선 무조건 맞습니다 ㅋㅋ
자연물 안나온시 있나요? 웬만하면 거의 다 나오고
정서를 환기한다는 판단부위도 아니구요 ㅎㅎ
- ②[A],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무력한 현실을 상징한다.
- A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B는 그냥 귀뚜라미가 시끄럽게 우는 거니까 아니죠
- ③[A], [B]에서는 모두 관조적 태도가 나타난다.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미친듯이 우는게 관조? ㅈㅈ
관조는 감정없이 객관적으로 감상하는 걸 의미합니다
감정보다 관찰, 감상의 의미가 있죠
(나)는 관조적인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 ④[A]는 [B]에 비해 공간의 대비가 두드러진다.
- 공간 하나씩만 나오죠 땡
- ⑤[B]는 [A]에 비해 시적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압축적? 귀뚜라미가 운다는 걸 계속 쓰고 있는데 무슨 압축이예요 ㅋㅋ
늘어났는데 ㅎㅎ 그리고 A가 더 압축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B는 단지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으니깐요 ㅎㅎ

답 1번.

4

언어 영역

홀수형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냐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잡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어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육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입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촉매는 마법의 돌이라고도 불린다.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 돕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철 촉매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금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매가 의식주,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업용 촉매 개발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촉매가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촉매 설계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표면 화학 기술과 촉매 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촉매 설계 방법은 ㉡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 과정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반응을 선정하고,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되어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며, 그 다음에 이 모델대로 반응의 진행을 쉽게 하는 활성 물질, 활성 물질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진제, 그리고 반응에 적합한 촉매 형태를 유지시

08수능 13~18번

(가) -김광균, 「와사등」-

등불이 나오니까 시각적이미지가 당연히 나오겠죠? ㅋㅋ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나**

찬 등불이 하늘에 하나 걸려있네요 ㅎㅎ
근데 화자는 등불을 보고 어딜 가라고 하는 슬픈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피해의식이 있나봐요 ㅋㅋ
자신이 떠나야된다고 생각하나보죠?
현실에서 적응을 못한 듯 합니다

차단한 - 시적허용, 촉각
호올로, 비인 - 시적허용
슬픈 - 정서직접
신호나 - 설의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고 야경의 불빛들이 켜지는데
화자는 이것도 상당히 암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가 지는 걸 황망히 날개를 접는다고 표현하고
높은 건물들을 묘비처럼 느끼고 있네요
야경은 잠초처럼 형크러져있다고 생각하고요 ㅋㅋ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암울하게 느껴지니
병어리처럼 입을 다무는 듯 합니다
얼른 치료를 받아야할텐데..

해 나래를 접고 - 형상화, 활유
묘석같이 - 직유
황혼에 젖어 - 공감각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잠초인 양 형클어진 채 - 시각, 형상화, 비유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이 사람은 어둠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합니다
레알 암울맨인듯..
어둠이 피부에 스민다고 표현했네요 ㅋㅋ
이 거리에 적응이 안되니까 낮설게 느껴지겠죠
별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ㅠㅠ
우울증인가봐요 ㅠㅠ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 공감각
아우성 소리 - 청각
눈물겹고나 - 시적허용, 정서직접, 영탄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사람이 많은데도 공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렇겠죠?
사람의 그림자는 원래 어두운데
이 사람은 자신이 무거운 비애를 지녀서
그림자가 어둡다고 느끼고 있어요 ㅋㅋ
내 그림자도 어두운데? ㅋㅋ
공허한 , 비애, 어두워 라는 단어들을 보면
이 사람의 황폐한 정신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비애 - 정서직접
어두워 - 시각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일반적으로 등불을 보면 따뜻하게 느끼는데
등불을 차갑게 느끼는 것 또한 화자의 심리상태를 짐작하게 하죠
이 시를 읽으니까 저도 멘붕이 오는 듯 ㅠㅠ

내 어디로~ 있다 - 수미상관

(나) -김수영, 「사령(死靈)」-

사령은 죽은 영혼이라는 뜻이죠

(가)시에 이어서 또 암울한 시가 나오는 건가요 ㅠㅠㅋㅋ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영은 죽어있다.

그럼 죽어있다는 것의 문맥적 의미는???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ㅎㅎ

활자는 A하는데

나는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당연히 not A가 되야겠죠? ㅎㅎ

활자는 A하는데

나도 죽어있다.

이러면 죽어있다는 의미는 A가 되겠죠 ㅎㅎ

암튼 ㅋㅋ 나는 자유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이 뒤에도 계속 이 소리만 하겠죠 ㅋㅋ

활자라는 건 아마도 매체 같은걸 의미하겠죠?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 의인
아니냐 - 설의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유를 말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겠죠

화자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으니까요

그대의 말은 당연히 자유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라 라는 구절을 보면

자신도 자신의 행동을 맘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벗이어 - 청자설정(자동으로 대화체)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 반복, 영탄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쪽 언급하고 있네요
황혼, 잡초, 페인트빛은 왜 맘에 안 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요한 건 왜 맘에 들지 않는지 유추할 수 있죠
자유를 말하지 않는 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고요하겠죠 ㅎㅎ
그럼 자유를 말하는 곳은 어떨까요? 시골벽적 하겠죠?

황혼, 페인트 빛 - 시각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 반복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옥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오홍, 교외라는 곳은 어떤 공간이죠?
옥된 공간이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떤 곳이 치욕스런 곳일까요?
자유를 말하지 않는 공간, 화자가 숨어있는 공간이겠죠
그렇다면 바로 전 연에서 황혼, 잡초, 페인트빛이 마음에 안 든 이유를 알겠네요
그것들은 교외에 있는 것들이겠죠
화자가 교외에 고요하게 숨어지내면서 매일 마주치는 것들.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맘에 안 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유를 말하지 않을 건가봐요

마음에 들지 않아라 - 이게 아까부테 계속 반복되네요. 너무너무 맘에 안 드는거죠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첫연과 거의 유사한 구절을 배치해서
자유를 말하지 않는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근데 이번엔 우스워라 라는 자조적인 구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대는 ~ 아니냐 - 수미상관

(다)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얼마전에 같이 봤던 '한가할한'이 또 나왔네요 ㅋㅋ
문을 열었더니 나무가 있네?
아 한가하다~ ㅋㅋㅋ
암튼 한가하게 사는 내용의 시네요 ㅋㅋ
자연이 좋다 자연에 살아서 너무 한가하다
이게 이 시 내용이겠죠 ㅋㅋ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원하는 게 뭐? 딱 두개. 충&효
이거 안하면 짐승 어흥.
충효하려고 십년을 허둥허둥 ㅋㅋ
그니까 암것도 안하고 놀았다는 얘기같은데.. ㅋㅋ
충효하면 판거 못하나 ㅋㅋㅋ

충효뿐이로다, 허둥대노라 - 영탄(뒤에도 계속 나오니 생략)

**계교(計較)* 이럴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등남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충효 열심히 하느라고 벼슬을 못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이룰까 말간에
시간이 너무 빨라서 못할듯 ㅠㅜ
전형적인 백수의 변명입니다 ㅋㅋ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이제 공부하다 안되니까 갑자기 자연타령합니다 ㅋㅋㅋ
벼슬 못해도 좋은데 자연이 좋다 ㅋㅋ
임천, 무심어조 강 일반화하면 자연 ㅋㅋ
자연이 한가하니까 조만간 공부 때려치고 자연에서 놀겠다
이려고 있다 ㅋㅋㅋ
고전에서 무심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ㅎㅎ
별 의미없이 자연물에 다 갖다붙입니다 ㅋㅋ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강호는 뭐? 자연 ㅋ
떡줄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임금이랑 자연이랑 저울질 하네요 ㅋㅋ
공부못해서 벼슬 못한 건데 웃기네요 ㅋㅋ
A를 하자하니 B를 못하겠고
B를 하자니 C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C는 뭘까요? A조
그니까 여기서 즐거움은 문맥상 자연을 뜻합니다 ㅎㅎ
암튼 자연이랑 임금이랑 고민중 ㅋㅋ

강호에 ~ 어긋나네 - 대구

**어찌라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아 어찌지 하면서 완전 고민중 ㅋㅋ
행도는 갈길이고 은둔처는 머무는 곳이죠
그니까 임금이랑 자연이랑 둘중에 뭘할지 모르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거 ㅋㅋ
언제나는 always가 아니라 언제쯤이라는 뜻입니다 ㅎㅎ
언제쯤 결정할까 모르겠다 하면서
공부못해서 벼슬 안하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을 못해서 그런거라고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네요 ㅋㅋ

㉓13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가)는 그냥 현실에서 멘봉한거고, (나)는 도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도피한 자신을 부끄러워 하는 거니까 땡
- ②(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둘다 노. (다)에서 끝까지 갈광질광 ㅋㅋ
- ③(나),(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나)는 현실에서 도망친 건데 ㅋㅋ, (다)는 부정적 세계가 나오지도 않음ㅋ
- ④(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나)만 있음 ㅋㅋ
- ⑤(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 (가) 멘봉 = 내적갈등, (나) 자조, (다) 미래에 대한 고민. 모두 ㅇㅋ

답 5번.

㉓14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공간의 의미가 중요한 건 (나)밖에 없는데 '교외'에서 대조적 어휘가 없다. 그리고 대조적 어휘의 '반복'도 없음 ㅎㅎ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나)만 있음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둘다 수미상관 ㅇㅋ. 정서심화는 판단부위가 아님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둘다 말 건네는 방식은 맞지만, 친밀감과는 거리가 있음. 뭐가 친밀해 ㅋㅋ 암울한데 대상과의 친밀감을 느끼려면 대상과 화자의 정서가 일치하거나 화자가 대상을 좇고 싶고 같이 놀고 싶고 이래야 함 ㅋㅋ
예를 들면 백구야 가디마라 너 잡을 내 아니다. 머 이런거? ㅋㅋ
- ⑤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둘다 없음.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거는 판단부위 아님.

답 3번.

㉓15번. ㉓, ㉓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㉓는 ㉓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날개를 접는 게 무슨 상승이미지 ㅋㅋ 하강이미지죠 ㅎㅎ
- ② ㉓는 ㉓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a 는 참신한 표현이구요 b는 관습적 표현 맞네요 ㅇㅋ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판단부위가 없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의 답이 될 수 없습다 ㅋㅋ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해를 새에, 세월을 물에 비유 했으니 옳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해 지는 것을 날개를 접는다고 했고, 세월을 물 흐르는 것에 비유했으니 맞네요 옳

답 1번.

㉠16번.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자아의 반응이 아닌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네요 ㅋㅋ

고층이 늘어선 건 자아의 정서랑 상관없죠 ㅋㅋ 그냥 늘어서 있는 사실을 말한 거니까 ㅋㅋ

답 2번.

㉠17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①‘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옳

②‘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본문에서 설명했죠? 땡

③‘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옳

④‘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옳

⑤‘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 옳

너무 쉬운문제!! ㅋㅋ

답 2번.

㉔18번.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의미 없는 보기네요 ㅋㅋ 강 읽으면서 시간이나 버려라!! 하는 보기 ㅋㅋ

①제1수는 시상 전개와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판단부위 없음 ㅋ

②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당연한 얘기ㅋㅋ 계교 '이렇더니' -> 계교가 앞의 내용과 관련있다는 의미 ㅋ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없는데? ㅋㅋ 자연은 3수부터 나옴.

④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자연, 임금 둘다 말하고 있으니 ㅇㅋ

⑤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선지4번이랑 똑같은 선지로 볼 수 있음 ㅋ

답 3번.